

“제주항공 참사 초기 부실 수습 책임 규명을”

재수색 9일째 정준호 의원 등 무안 찾아 유해 추정 944점·유류품 566점 추적 유가족協, 참관·간담회서 성토 이어가 오늘 ‘총특위추’ 보잉코리아 규탄 집회



이날 재수색은 사고 지점인 로컬라이저와 공항 외곽 펜스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무안공항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염태영·김문수·정준호 의원이 참관했다. <사진> 재수색은 경찰과 소방 당국, 군부대 등이 함께하는데, 지표면을 걷어내며 나온 흙을 채로 거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와 별도로 20여명의 유가족도 재수색에 참

여했다. 앞서 항철위는 재수색 첫날인 지난 13일에만 현장 이동용 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가 유가족의 반발에 제공을 이어가고 있다. 유가족들은 희생자 분향소 헌화와 묵념 후 재수색 현장과 유류품 창고를 둘러 본 세 의원에 게 최근 잇따른 유해 발견은 초기 수습이 너무나 부실했다는 반증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오후 1시계 항철위, 염태영·김문수 의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유가족들은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국가가 수습이 끝났다고 했지만 유가족들이 직접 수습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참사로 모든 것을 잃었는데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유가족들이 분노하는 것은 왜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며 “초기 수습을 누가 지시했고 누가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의원은 “사고 직후 유해 발굴이 소홀히 되고 방치됐다는 데 대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사와 수사가 책임감 있게 진행되고 있지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느슨하다고 느낄 수 있는 만큼 그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별도로 지난 1월 꾸려진 ‘총체적 부실에 대한 특별법 개정 및 국가위로금 추진 결사(총특위추)’는 28일 오전 11시 서울에 위치한 보잉코리아 본사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유가족협의회 소속 일부와 어는 쪽에도 속하지 않았던 이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특위추 관계자는 “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시속 380km로 동체 착륙을 해야만 했는지 보잉사는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연상기자

전남도, 고독사 위험군 선제 발굴 위기정보 보유 3만8천명 기획조사

전남도는 27일 “최근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으로 고독사와 위기에 놓인 도민을 선제 발굴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고독사 위험군 발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전남 지역 1인가구 43만여명 중 체납, 자살 위험, 알코올중독, 치매 등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위기정보 27종 가운데 1개 이상 해당하는 3만8천여명이다. 조사는 공무원을 비롯해 우리동네 복지공동체, 이웃연결단, 이·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인적안전망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위기정보가 3종 이상 중복된 가구는 직접 방문해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에게는 필요한 맞춤형 예방 서비스를 연계한다. 중·고위험군은 복지·건강·돌봄 등 대상자의 생애주기별 욕구와 상황을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하고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김재정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20교육발전위원회 광주·전남 교육 행정 통합에 따른 시·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20교육발전위원회 공청회가 27일 광주A교육원에서 열린 온라인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320위원회 위원들이 토론하고 있다. /조영권기자

“항공료 부풀리기” 김대중 후보 사퇴하라

고두갑·김해룡·이정선 예비후보 촉구 김 예비후보 측 “행정 착오...반환” 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 선거에 나선 고두갑·김해룡·이정선 예비후보가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

을 받고 있는 김대중 예비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예비후보 3명은 27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 수장이 혈세를 삼킨 것처럼 여기고, 부당한 이익을 취해 사용했다는 의혹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주 방문 과정에서 책정된 1천100만원의 항공료는 일반적인 비즈니스석 운임이나 당시 항공시세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었다”며 “실제 결제 금액과 장부상 기록된 금액 사이에 막대한 차액이 발생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김 예비후보측에 호주 방문 당시 항공권 결제 내역과 실제 탑승권, 현지 지출 증빙 서류 전체 공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현지에서 소요되는 통역

비와 가이드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여행사가 항공권 정보를 수정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부풀려진 항공료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교육청에서 행정상 착오가 있었다고 해 반환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지난 1월 외부 민원이 제기되자 감사를 통해 10차례 국외출장에서 비용이 과다 책정된 것에 대해 김대중 교육감 730만원 등 총 2천832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박선욱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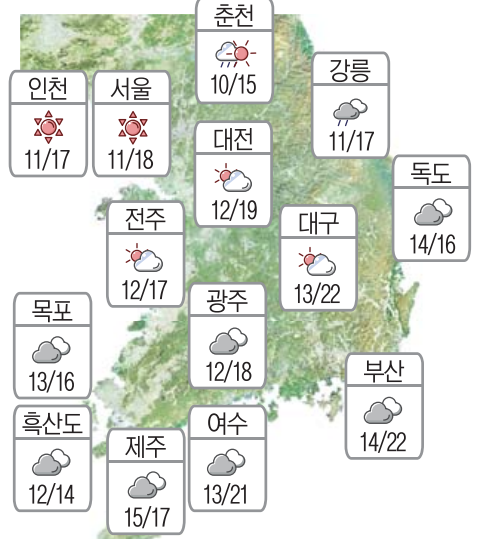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5 해질 19:15 🌙달돋이 16:05 달질 03:44

●광주·전남 날씨

광주	구름많음	12/18	장성	구름많음	11/17
목포	구름많음	13/16	보성	구름많음	11/18
여수	구름많음	13/21	함평	구름많음	12/16
나주	구름많음	12/18	순천	구름많음	12/21
완도	구름많음	13/19	영광	구름많음	12/15
구례	구름많음	11/19	진도	구름많음	12/15
강진	구름많음	12/18	흑산도	구름많음	12/14
해남	구름많음	12/18	고흥	구름많음	11/20
광양	구름많음	12/21	담양	구름많음	11/17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1.0	0.5-1.5
남부 앞바다(북)	0.5-1.5	1.0-2.0
남부 앞바다(남)	0.5-1.5	1.0-2.0
남해 앞바다	0.5-0.5	0.5-1.0
서부 앞바다(동)	0.5-1.0	0.5-1.5
서부 앞바다(서)	0.5-1.0	0.5-1.5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12:10	05:04	07:05	00:47	07:46	01:48
여수	--:--	17:32	19:35	13:12	20:14	14:19

●생활정보지수

👜 **니들이 60** 🚗 **세차 60**
 감기 조심해요 세차하기 좋은날
 🧤 **빨래 50** 🏃 **운동 40**
 실외건조 좋아요 운동 후 체온 유의

●주간 날씨

29일(수)	30일(목)	5월1일(금)
☁(9/19)	☁(8/22)	☀(7/24)
구름많음	구름조금	맑음
2일(토)	3일(일)	4일(월)
☁(9/23)	☁(10/24)	☀(9/25)
구름조금	구름조금	맑음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